

# 애플망고·파파야·커피 재배 ... 농사지도 새롭게 그린다

## 전남도. 아열대 변화 대응

### 벼 직파 시기 앞당기고 보리 파종은 한달 늦춰 수산물 고수는 품종으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함에 따라 전남 농가들이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과 기술 부족, 시장 확보 등의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전남도도 식량작물의 적정 파종 시기를 재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벼 직파는 시기를 앞당기고, 보리 등 맥류 파종은 한달가량 늦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아열대작물 권고안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을 꾀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등도 전복·다시마·김 등 경쟁력 있는 전남 수산물에 대해 고수는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확산=유례없는 장기간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치솟고 있다. 예년 같으면 섭씨 23~25도에 머물러야 할 서·남해안 수온이 30도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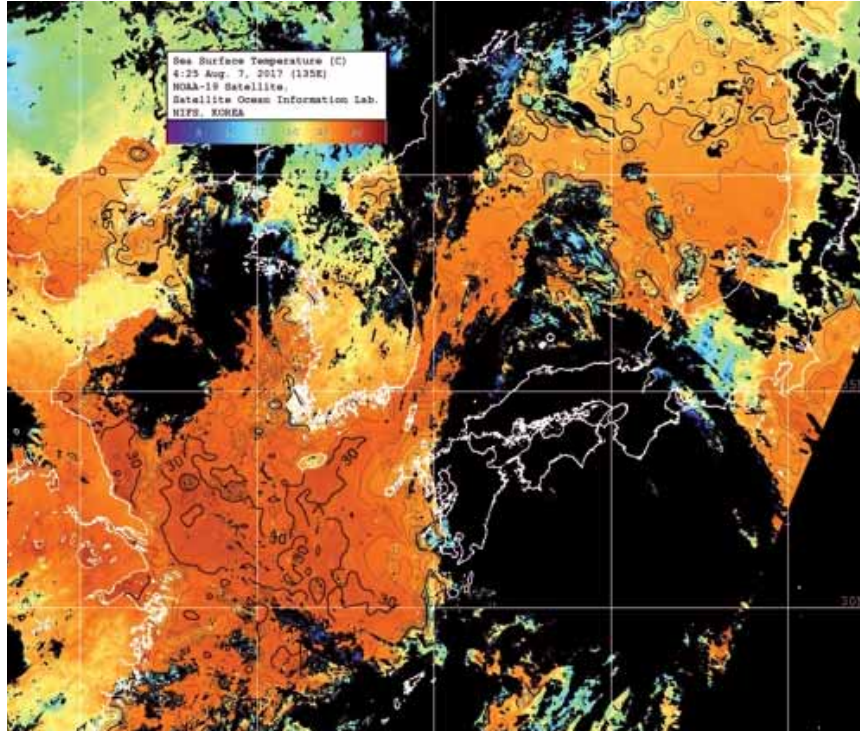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도 전복·다시마·김 등 경쟁력 있는 전남 수산물에 대해 고수는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남 해역별 수온은 지난 6일 현재 여수 신월~장흥 회진 27.1~29.9도, 완도 동백·정산 27~27.4도, 해남 화산 27.4도를 기록했다. 고흥 나로도(28.4도)는 평년보다 3.3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양식 어패류는 소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질병 감염, 산소 부족 등으로 폐사할 수 있다. 특히 육상 수조 양식에서 낚지·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에서 조피볼락·전복 등 피해가 우려된다.

폭염에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모두 255농가에서 32만498마리의 닭, 오리, 돼지가 폐사했다. 가축별로 닭 29만6730마리, 오리 2만2872마리, 돼지 896마리다.

목포, 여수, 완도를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닭·오리 사육량이 많은 나주시가 7만8223마리로 가장 많고 곡성 4만6901마리, 영암 4만4423마리, 무안 3만558마리 등이다.

돌발 해충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지역 생태계 교란 곤충 예찰체계 구축 및 당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대상 곤충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뜨거운 바다 7일 오전 한반도 주변 바다 수온 분포. 유례없는 폭염으로 아열대 바다와 맞먹는 29도까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권역별 아열대 작물 특화 방안

구분	지역	아열대 작물 권고
중부서해안지대	나주·영암·무안 함평·영광·신안	부지화, 무화과, 레드향, 콜라비, 차요태(5)
남부해안지대	고흥·보성·장흥 강진·해남·완도	애플망고, 부지화, 석류, 비파, 올리브, 커피, 레드향, 아스파라거스, 여주, 오크라, 콜라비(11)
동남경제자유지대	여수·순천·광양	애플망고, 백향과, 올리브(3)
북부산간지대	담양·곡성·구례 화순·장성	백향과, 파파야, 레드향, 오크라, 양빈, 아스파라거스(6)

선벼베레, 풀무치 등이다. ◇아열대 작물로 틈새 재배=전남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전남도도 작물재배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산재해 있던 아열대 작물 재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최근 아열대작물 권고안을 내놨다. 권역별로 권장 품목을 지정해 단지와 규모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주·영암·무안 등 중부 서해안지대에는 부지화·무화과 등 5개 작목을, 고흥·보성 등 남부 해안지대에는 석류·비파·커피 등 11개 작목을, 여수·순천 등 동남 지역에는 백향과·올리브 등 3개 작목을, 담양·장성 등 북부 산간지대에는 파파야·백향과 등 6개 작목을 각각 지정했다.

이 같은 기준 마련에는 작물별로 재배 기후·토양 등 재배여건이 고려됐다. 곡성에서 재배되는 파파야가 국내 유통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이 파파야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아스파라거스와 여주의 경우 도내 최대 산지는 강진군이고, 커피와 애플망고는 고흥

군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 ◇보리 파종은 한달 늦춰야=기후온난화에 따라 보리 파종 시기는 현재보다 한달가량 늦춰야 수확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2017년 낙안면 농가포장에서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9개 품종을 파종 시기를 달리해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맥주보리(3품종)의 경우 10월25일에 파종한 수확량은 10a당 169kg, 11월 5일 파종때는 10a당 296kg, 11월15일은 10a당 339kg이었다. 쌀보리(2품종)의 경우도 10월25일 파종 시 수확량이 10a당 110kg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11월5일 파종은 10a당 226kg, 11월15일에는 10a당 301kg으로 나타났다. 길보리(2품종)와 밀(2품종)의 경우도 파종시기에 늦어질수록 수확량의 증가세는 대동소이었다.

이 같은 기준 마련은 전남의 안전한 보리류 파종시기로 보고 있는 10월25일~11월5일을 뒤집는 결과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보리류 파종시기를 기존 시기에서 11월 상순~11월 중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트럼프 대통령

### 북한과 대화 했나요?

###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핵 폐기까지 제재·압박해야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트럼프 통화 ... 북한문제 압박 통한 평화적 해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가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반드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방점을 찍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통화 이후 89일 만에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 타격론' 또는 '예방적 전쟁' 등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문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국내외에 전명함을 물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코리아 패싱'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통화는 양 정상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서로 온도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6년간 통화하며 주로 문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으나, FTA 문제만큼은 먼저 말을 꺼내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현재도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먼저 강조하고, 미국이 개정을 바라다면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수준의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한편, 북한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에 전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결의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조진중양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외무성 성명보다는 격이 높은 '정부'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남북한 외교장관 마닐라서 조우 짧은 대화

### 남 강경화 "대북제안에 조속한 호응 기대한다"

### 北 리용호 "미국과 공조 대화제의 진정성 없다"

남북한 외교장관이 다자회의 계기에 마닐라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구상과 관련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저녁 마닐라의 '물오브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 때 대기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조우해 악수를 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남북한 각료급 고위 당국자가 짧게나마

대면해 대화를 나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한국 새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후속조치 차원의 대북제안에 북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리 외무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측이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북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측 제의에 담긴 진정성을 강조하고 북측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의 조우는 누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고 대기실에서 장관들 간에 상호 수인사(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가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 해법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지난달 제1차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사실상 거부 입장이 북측 및 당국자의 육성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공조 강화 조치를 대화 거부의 이유로 거론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대화의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클래식** AVPP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호이안·후에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캐주얼** APPF10\_8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5일

**총 상품가격 74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7월 29일(토)~8월 30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팬퍼시픽 항공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17년 10월 15일  
장소: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정정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정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착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함.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이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이용에 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이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비 및 상환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 휴일 2급호선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한민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1행 1 ●여행 유망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